

On the Administrative of Stack Room and Preservation of the Materials.

書庫管理 및 圖書保存에 대하여

李 澤 濬

本會專門委員會

書誌分科委員

圖書館資料는 破損되기 쉽고, 汚損되기 쉬우며, 圖書館에는 많은 圖書와 其他 資料가 있게 마련이어서 그 量의 多寡에 依하여 保管上 難易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圖書館資料는 所重하게 收藏하여야 함도 물론이다. 그들 資料가 한번이라도 많이 活用되어 閱覽者의 知識과 마음의 糧食으로서 生氣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所願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보다 健實한 利用을 前提한 保管만이 우리들의 圖書館資料 保存이 아니면 안된다.

圖書館資料의 保管(conservation of library materials)이라는 業務는 資料整備(preparation of materials)의 一部로서 技術過程에 包含되지만, 그러나 一般의으로는 奉仕部門에 從事하는 職員의 日常業務로 되어 있다.

資料保管을 擔當하는 職員의 責任은 다른 物品保管에 關한 責任과 別差는 없겠으나 實務上 留意할 事項을 要約하면, 첫째로 所藏資料의 存否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둘째는 資料를 濕氣·火氣·光線·害虫 등 被害에서 잘 保護하여 安全한 保存措置를 施行하여야 함은 물론, 셋째는 破損資料의 補修를 한다든가 또는 그 手續事務를 行事하여야 하는 同時에, 넷째는 資料를 收藏하는 書庫 其他 資料室를 整頓 管理하여야 한다.

書庫의 採光 및 最適溫度·濕度

1. 採光

日光의 連續直射는 圖書의 保存上 絶對 禁物이다. 日光의 直射光線은 冊表紙의 退色, 請求記號의 磨滅 및 심지어는 裝幀과 紙力의 消盡으로 冊 自體의 運命이 다 되고만다. 그러므로 直射光線이 드러오는 窓을 막아 日光을 遮斷하여야 한다. 그리고 大部分의 圖書館이 書庫에서 晝間에도 人工照明하는 理由의 하나가 이런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溫·濕度의 調節

溫濕도에 對한 書庫內의 理想狀態는 溫度 20°C~28°C이고, 濕度 50%~65%로 보고 있다. 그리고 溫濕度の 急激한 變化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溫濕度を 恒常

一定하게 維持할 수 있는 設備는 우리 나라 經濟事情上 圖書館에게 當장 바랄 수 없기 때문에 溫·濕度計를 書庫內에 配置하여 窓의 開閉에 注意하여 極端의 高溫, 高溫度를 豫防한다든가, 夏節에는 窓에 遮蔽物을 設置하여 日光의 直射를 避하는 程度에 끝이는 수 밖에 없다. 장마철에 濕度 80% 以上으로 올라가고 細菌의 繁殖이 極甚한 狀況인 우리 나라에서는 除濕器의 設備가 바람직한 일이다.

書庫에서는 濕氣가 大敵이라 하는 것은 一般의인 常識이다. 濕氣가 많은 곳에 書籍을 두면 그 書籍은 當장 濕氣를 及收하여 氣溫이 높아지면 곰팡이가 發生하여 惡臭을 發하다가 차츰 腐朽하고 종래는 使用不能의 廢本이 되고 만다. 濕氣가 많아 곰팡이가 發生하는 書庫에서는 害虫도 發生하기 쉬우며, 書籍의 損傷은 그 욱 極烈해 진다.

이에 反하여 濕度가 너무 낮은 書庫에서는 書籍이 乾燥하여 表紙가 뒤틀리거나 書背部分 接着劑의 부착이 떨어져 書籍 自體가 산산히 破損되는 수가 있다.

너무 乾燥하거나 濕氣가 심히 많이 찬다든가 濕度の 變化가 거듭된다면, 圖書는 濕氣를 吐해내거나 吸收의 作用이 交錯하여 圖書를 構成하고 있는 組織體는 불안定 狀에 達하여 呼吸作用을 이르게 그 組織이 粗雜해지고 끝내는 散散히 解體風化된다. 溫度가 變化한다면 圖書는 溫度가 膨脹하거나 收縮하게 된다. 그 影響은 濕도와 比較하여 큰 害는 없다고 생각되나, 溫度가 小幅의으로 變化하면 이에 隨伴하여 濕度는 大幅의으로 變化함으로 濕度の 變化에 의하여 影響을 크게 받는다 고 볼 수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書庫內 溫度의 變化는 書籍의 命數에 크게 影響을 끼치는 것으로 重要視하여야 한다.

가) 保存書庫의 最適溫濕度

書庫內의 最適溫濕度는 얼마나 되느냐라는 質問을 잘 받지만, 그것은 書庫가 保存만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保存書庫인지 또는 그 圖書를 每日閱覽에 供하는 活動書庫이냐에 따라 相違할 수 있다.

단지 資料의 原形대로 變化됨이 없이 永久히 保存하

는 것 만을 目的으로 하는 保存書庫 即 死藏書庫의 경우에는 書庫內의 溫度는 極寒의 狀況, 例를 든다면 零下 10°C 以下를 維持하면 좋겠다.

零下 10°C程度가 되면 空氣中の 水分은 대단히 稀少해져 絕對溫度는 零에 近接하게 된다. 空中의 水蒸氣가 直接水의 結晶이 된다든가, 氷이 直接水蒸氣가 되어 昇華한다. 溫度가 어느 一定値에 達하면 空氣中에 包含되는 水蒸氣의 最大量은 定量化된다. 水蒸氣의 量이 이것보다 많을 때에 그 餘分의 水蒸氣는 氷의 結晶으로 變化하고, 水蒸氣의 量이 이것보다 적을 때에는 圖書에 함유된 水分이 空中에 날라 平衡狀態가 되어 安定된다. 이러한 水分은 絕對量이 적고 液體의 狀況이 아님으로 書籍에 損害를 끼치지 않는다. 이 경우 乾燥過度를 豫防하기 爲하여 書庫의 要所要所에 氷塊를 넣은 容器를 配置하는 것은 書庫安全管理의 한 有效한 方法이다.

이와 같이 書庫를 低溫度로 維持하면 곰팡이와 孢子가 冬眠狀態가 繼續됨으로 全部 死滅하여 害虫은 活動을 停止하여 假死狀態가 되기 때문에 圖書의 腐朽를 이르킬 念慮도 없고, 또한 虫害도 걱정없다. 그리고 이러한 低溫度에서는 酸化作用과 같은 化學變化도 極히 緩慢하게 되거나 거이 停止된다. 上述한 바와 같이 溫度로 規制함으로써 溫度도 一定量으로 制裁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圖書가 溫濕度의 變化에 의하여 影響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保存書庫에서는 그 溫度를 零度 以下の 一定溫度로 維持시킴으로서 圖書를 原狀대로 永久히 保存할 수 있다. 시베리아의 寒帶地方에서 數十萬年 以前の mammoth 遺體가 發見되었을 때 全然 腐敗相이 아닌 채로 原形이 完全하게 保存되어 그 內部는 食用으로 提供할 수가 있었다고 한 바와 같이 寒冷狀態의 物品保存에는 絕對인 偉力を 發揮하고 있다.

나) 活動書庫의 最適溫濕度

書庫 속의 資料를 頻繁하게 閱覽室에 索出해내서 利用에 提供하는 경우에는 事情은 一變한다. 閱覽室은 常溫狀態로 維持되고 있기 때문에 그 氣溫은 15°C 내지 30°C이다. 이러한 場所에 極히 低溫度로 스텍한 圖書를 집어내어 드러왔을 때 閱覽室의 空氣中에 含有하고 있는 水分이 書籍에 結露하여 水水를 집어넣은 유리의 板面에 水滴이 結露함과 같이 書籍全體에 水浸하게 되어 즉시 書籍은 水害를 입게 된다. 또한 急激한 溫度의 上昇을 일으킨 圖書는 그 組織이 別안간 膨脹한다. 이것을 再次書庫에 入庫하면 溫度가 急降하기 때문에 組織은 急激하게 收縮한다. 이 사이에 組織內에 空氣의 出入現象이 일어나 組織이 呼吸作用과 類似한 作動을 하게 된다. 이러한 作用을 反復하면 圖書는

急速히 損傷된다. 더욱 書庫에서 常勤하는 職員은 防寒服을 着用하여야 하며 때때로 寒暖의 場을 넘나 들게 되기 때문에 健康을 해칠 危險이 있어 人權問題와 寒冷室 勤務手當의 問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活動書庫를 上述한 바와 같이 書庫內를 寒冬狀態로 維持하는 것은 適當하지 않다.

活動書庫內의 溫度는 閱覽室의 溫度와 많은 差異가 없도록 調整하여야 한다. 閱覽室은 讀書에 快適한 溫度와 濕度로 調整함이 理想的이다. 그 溫度는 冬期에 18°C~22°C, 夏季에 22°C~26°C로 하는 것이 普通이며, 關係濕度는 夏冬 共히 45%~55%가 通例이다. 이러한 條件을 繼續維持하여 滿足한 狀態로 하자면 空氣調和設備를 하여야 한다. 空氣調和設備가 없을 경우 冬期에는 閱覽室은 어디나 暖房함으로 室內溫度를 18°C~22°C로 維持하는 것은 比較的 容易하지만, 夏節에는 閱覽室의 溫度는 28°C까지 上昇하거나 往往 30°C 突破할 수도 있다.

書庫內의 溫度를 閱覽室의 溫度와 그리 差異가 없는 狀態로 調整하여 이것은 一定不變의 狀態로 維持하여야 함으로 空氣調和設備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書庫內의 溫度를 同一하게 調和를 이루게 할 수 없다. 閱覽室의 空氣를 調和할 경우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冬期에는 18°C~22°C, 夏節에는 22°C~26°C로 하는 것이 普通이므로 書庫內의 溫濕度는 아래와 같이 定하여 이것을 年間을 通하여 一定하게 維持시킴이 좋다고 생각 된다.

書庫內의 最適溫度	22°C
書庫內의 最適濕度	50%

溫濕度를 年間을 通하여 不變하게 維持한다면 圖書는 溫度의 變化에 依하여 伸縮하지 않으며, 또한 溫度의 變化에 依하여 濕氣를 過多하게 吸收하여 膨脹하거나 干해내서 縮小하는 呼吸作用도 없이 圖書는 恒常同一한 物理 化學의 狀況을 維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溫濕度를 一定하게 維持시킨다면 圖書에 곰팡이가 發生하지도 않으며, 그러므로 虫害의 被害를 받을 傾向도 적어 圖書는 永久히 原狀대로 保存할 수 있다. 또는 이 圖書를 閱覽室에 내어보내도 閱覽室內의 溫度가 書庫의 溫度와 差가 甚하지 않기 때문에 圖書는 溫濕度 變化의 惡影響을 받을 念慮도 적다.

閱覽室의 空氣調和設備가 없는 경우에는 冬期는 暖房에 依하여 室內溫度를 18°C~22°C로 保溫됨으로 書庫內 最適溫濕度는 上記와 同一하게 調整하면 큰 問題가 없겠으나, 夏節에는 閱覽室의 溫度는 28°C程度로 올라가, 때로는 30°C以上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으므로 書庫內의 溫度를 22°C로 定해 둔다면 圖書를 閱覽

室內에 가지고 갔을 때 書籍은 結露現象이 일어나 圖書은 水害를 입게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書庫內의 溫度를 약간 높여야한다. 이 경우 適溫, 適濕은 下記와 같이 調整하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夏季 書庫內의 適溫 28°C

夏季 書庫內의 適濕 50%

곰팡이는 溫度 23°C以上, 濕度 80% 以上으로 바람이 없을 때 發生하는 것으로, 氣流가 每秒 30cm이면 곰팡이의 發生이 容易하지 않다. 그러므로 上記의 28°C, 50%로 空氣調整을 한 書庫內에 있는 圖書에는 곰팡이가 發生할 念慮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溫度를 一定하게 維持시킴으로서 閱覽室에 내어보내는 圖書의 結露現象은 自然히 防止되게 된다.

空氣調整과 風化

1. 空氣調整

空氣調整(Air conditioning)이란 室內의 人體에 快感을 또는 室內의 物品에 가장 좋은 空氣條件을 賦與하기 위하여 室內의 溫度, 濕度, 清淨度 및 氣流 등의 同時에 調整하는 것을 말한다. 換言하면 暖冷房에 換氣 다시 濕度の 調整이나 防塵 등을 一時에 作動하는 것이다.

導管(duct)에 의하여 室內의 空氣를 循環시켜, 途中에 新鮮한 空氣를 잡아넣고 空氣를 濾過하여 加熱, 冷却 또는 濕度を 調整하여 再次 室內에 送氣한다. 이 送氣의 方法이나 速度, 暖冷房의 種類에 의하여 여러 가지 形式이 있다. 어떠한 形式을 採用할 것인가는 竊築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設計初期부터 併行하여 檢討하여야 한다.

空氣調整은 從來의 暖房이나 換氣에 比하여 보다 高度의 理想的인 設備이지만 아무래도 設備費, 維持費 共히 높아 現在 우리 나라에서는 南山으로 移轉한 國立中央圖書館 施設中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 餘他 圖書館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머지않은 將來에 여러 圖書館에 普及되리라고 展望된다.

2. 資料의 風化問題

書庫內의 空氣를 調整하여 溫度 및 濕度を 特定值로 維持한다는 것은 圖書의 保存에 緊要한 處置이지만, 書庫內의 溫濕度を 一定值로 하는에는 書庫內의 空氣에 對하여 一定한 風道를 通하여 機械室에 誘導함으로써 脫濕, 脫溫 또는 加濕, 加溫處理한 것을 再次 風道를 通하여 書庫內에 導出하는 必要한 節次에 의하여 常時 空氣를 環流하는 過程을 밟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거침으로서 書庫 속에 空氣의 흐름을 단절하게 된다.

書籍이나 其他資料는 긴 세월동안 바람을 타게되어 變色風化를 이룬다. 그러므로 空氣調整하는 書庫內

의 資料는 점점 風化되어가는 傾向이 있다. 室內에 空氣를 가두어 두고 움직이지 않게하면 資料에 接하는 空氣의 움직임이 極히 적기 때문에 空氣中の 酸素에 의하여 資料가 酸化하는 化學變化가 緩慢하게 되지만 室內에 甚한 氣流가 搖動하면 圖書은 空中酸素의 攻撃을 받아 風化가 빨라진다. 活動하는 書庫는 書籍, 其他資料를 閱覽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單純히 資料를 死藏시키는 保存書庫와는 目的을 달리 하고 있다. 가장 有效하게 活動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圖書은 頻繁하게 閱覽者로 하여금 利用되어 閱覽으로 인한 消耗率이 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活動이 盛行하는 圖書館의 書庫에서는 風化로 損傷되는 것 보다 顯著하게 閱覽에 의한 消耗가 莫甚하여 이것을 廢本하고 新本과 交替하게 됨으로 風化에 의한 消耗는 걱정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永久히 原形대로 保存하여야 할 貴重圖書에 對하여는 風化問題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3. 貴重圖書의 安全收藏

貴重圖書는 特히 虫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樟腦, 나프탈린 등의 防虫劑에 의하여 防虫하는 것이 普通이지만, 圖書를 表出된채 排架할 경우에는 書庫 室內 全體에 防虫劑의 蒸氣를 풍기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室內을 空氣調整에 의하여 空氣를 循環하고 一部를 廢氣하거나 新鮮한 空氣를 交替하는 것을 併行할 때, 防虫劑는 急速히 外氣에 放出된다. 그러므로 防虫劑의 蒸氣 所要量을 多量補給하기 위하여 莫大한 防虫劑가 所要되게 된다. 또한 前述한 바와 같이 空氣의 流通에 의한 資料의 風化라는 重大한 問題가 發生된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爲하여는 다음과 같은 處置가 必要하다. 即 貴重한 圖書는 梧桐箱子나 其他 密閉할 수 있는 箱子속에 넣고, 그 속에 樟腦나 다른 防虫劑를 挿入하고 容器를 密閉하여 書架에 保管하여야 한다. 或은 盜難의 豫防, 火災時 消盡의 豫防을 위하여 箱子에 函入된 資料를 安全金庫에 保管할 수 있도록 金庫를 書庫에 配置할 必要가 있다.

이렇게 貴重資料를 安全하게 收藏한 狀態에 書庫內를 一定의 溫濕度を 維持시킬 수 있도록 空氣調整을 施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梧桐箱子 속에 들어있는 少量의 空氣는 防虫劑의 飽和蒸氣가 充滿된채로 固定시킬 수 있으므로 벌레의 死滅은 물론 圖書는 거의 酸化現象을 이룬 念慮가 없게 된다. 또한 書庫內의 溫度와 濕도와와 好適한 一定數值를 維持할 수 있기 때문에 梧桐箱子 속의 空氣는 箱子의 壁體를 通하고, 혹은 安全金庫의 隔間을 通하여 微量의 交通을 하게되어 書庫內와 同一의 好適한 一定의 溫度 및 濕도가 됨으로 溫度의 變化도 濕度の 變化도 일어나지 안

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處置를 하였을 때 貴重圖書는 長年에 걸쳐 原形대로 安全하게 保存할 수 있다.

※樟腦: 녹나무(樟木)에 含有된 物質로서 防腐劑, 驅虫劑 등에 쓰임. 卽 녹나무를 蒸溜하여 얻은 固體成分으로서 色이 없고 半透明하며 빛이 있는 結晶으로 獨特한 香氣가 있다. 그리고 물에 녹지 않으나 酒精, 에테르 등에는 반대로 잘 녹는다. 또한 이것은 樟木 卽, 眞樟, 油樟, 芳樟의 등치, 뿌리, 가지를 蒸溜機에 넣고 水蒸氣로 蒸溜하여 그 液을 식혀서 만들며, 셀로이드, 無煙化學 필름, 強心劑 등의 製造 및 防虫劑, 防臭劑 製造에 使用된다.

防虫, 防鼠의 圖書의 消毒

1. 虫害와 그 對策

空氣調和를 施行한다면 곰팡이의 發生을 防止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書籍의 臭氣를 除去하여 資料의 收藏에 効果를 올릴 수 있겠으나, 이에 依하여 害虫의 防止까지는 할 수 없다. 濕氣를 적게 함으로서 어느程度 昆虫의 活動을 鈍하게 할 수는 있으나, 空氣를 調和한 書庫 속은 人類의 快適溫濕度와 거의 一致하는 溫濕度를 最適狀態로 하기 때문에 이 溫濕度는 昆虫類에 對해서도 不快不適할 理由가 없다. 그러므로 虫害를 發生할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書庫 속에 한번 虫害가 發生하면 猛烈한 氣勢로 蔓延될 것은 變할 일이다. 그리고 安全한 方法으로는 書庫에 새로히 入庫시킬 資料에 對하여는 철저히 無虫 無虫卵의 狀況에 있음을 確認하는것이 最上이다.

主要한 書籍의 敵(enemy of books)라고 할 수 있는 昆虫, 쥐(鼠)와 그 驅除法은 다음과 같다. 有害動物別로 被害와 對策은

반대줄(衣魚, 紙魚, 銀魚(silver fish): 濕氣가 많은 圖書(특히 窓糊紙<재래식 종이>로 裝幀된 것이나 內裝된 圖書), 크로즈裝, 糊付裝 등 主로 澱粉質糊를 갈가 먹는다. 表紙의 크로즈나 낡은 창호지류에 흰 細點을 만들어 文字를 稀消하게 한다. 光線에 弱하고, 古來로 曝書로서 日光에 쬐여 自然히 逃走하게 하는 方法을 施行해 왔으며, 藥品으로는 樟腦나 驅虫劑를 書中에 끼여두는 것이 一般의 防禦法으로 利用되고 있다.

人參死番虫: 幼虫이 종이를 씹는다. 1년에 數回씩 世代를 交替함으로 繁殖이 빠르고 猛威를 떨칠 念慮가 있다. 濕氣가 많고, 暗室 등 칙칙한 場所를 즐긴다. 종이를 갈가먹는 習性을 가지고 있으며, 本文을 몇장이고 貫通시켜 가면서 地圖의 境界線을

그은것 같이 먹어버린다. 그러므로 文字가 消滅될 뿐아니라 결국은 廢本이 되고만다. 成虫은 맑은 날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窓으로 날아 들어온다. 그러므로 書庫의 窓門에는 微細한 鐵網을 치고, 藥物을 挿入시키는 것이 좋다.

油虫: 크로즈糊裝을 즐겨 먹음으로 裝幀을 흐트러뜨린다. 藥品(DDT 등)을 散布하여 驅除한다. 捕獲하여 燒殺하기도 한다.

흰개미(白蟻): 家屋의 木部를 갈가먹음으로 因해서 危險하게 하고있지만 圖書에 있어서도 人參死番虫과 同一한 害를 끼치고 있다. 洋裝本, 아트紙로 內裝된 冊에 甚한 被害를 주고 있다. 早期에 發見하는 것과 專門家에 의한 驅除가 必要하다.

집쥐(家鼠): 書庫內에 侵入하여 圖書의 糊付部分을 쓰러먹는다. 書庫를 견고하게 하고 侵入할 수 있는 틈새를 두지 말아야 하며, 수시로 쥐잡기를 매 대적으로 實施하여 큰 被害를 당하지 않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圖書의 殺虫方法에는 氣體, 液體, 固體 등 毒物 或은 劇藥을 利用하여 毒殺하는 方法, 熱을 加하여 燒殺하는 方法, 이와 같은 方法을 併用하는 方法, 放射能을 利用하는 方法 등 여러 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가장 簡單하고 有效한 殺虫方法을 提示한다면 다음과 같은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卽 圖書를 여러冊씩 殺虫劑를 加하여 適當한 크기의 氣體가 流通하지 않는 包袋에 넣어 內部の 空氣를 쉴 수 있는대로 排除한 후 그 包袋의 입을 密封해서 書架 등 一定한 場所에 長時日 放置하는 方法이 이것이다. 包袋 속의 空氣가 少量이기 때문에 殺虫劑가 少量이 들어있더라도 그 蒸氣는 濃厚하게 되고, 이 濃厚한 蒸氣가 長時日 동안 圖書의 內部 속속드러 浸透하여 벌레를 죽게 할 수 있다. 벌레의 알은 書庫內의 快適溫濕度에서는 容易하게 孵化하여 幼虫이 되어 殺虫劑의 濃厚한 蒸氣를 呼吸하여 死滅하기 때문에 根絶하고 만다. 包袋 속의 空氣가 적은 벌레의 生存에 必要한 酸素의 量이 적게되며, 아울러 殺虫效果를 높게 된다. 이 方法의 難點은 殺虫하는 時間이 긴데 있지만 利用度가 적은 圖書에 있어서는 크게 그 效能을 發揮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以外에 거미, 파리, 곰팡이 등의 汚損도 있지만, 세삼스럽게 言及할 必要는 없다. 圖書館에서 圖書가 勿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됨으로 傳染病의 媒體로서 不幸한 役割을 하게되는 危險도 있다.

消毒法으로는 前述한 바와 같이 日光消毒, 卽 空氣가 乾燥한 天候의 季節에 해바지가 좋은 창가 등에 露臺를 設置하고 圖書의 小口를 벌린 形으로 數時間 日光에 曝

書한다. 曝書한 후 表紙가 뒤틀리거나 糊付의 부착이 떨어지기가 쉬우니 조심스럽게 補修하여 한군데에 重壓시켜 바로 잡아줄 必要가 있다.

가소消毒은 호루마린劑가 가장 많이 利用되고 있다. 簡單하게 施用하자면 書庫를 密閉하여 속에서 藥品을 散布 또는 蒸發시켜 數日間 放置하여야 한다. 그러나 書架의 기둥이 까지 徹底히 施用해야 한다. 本格的으로는 眞空裝置를 具備한 空腔內에 호루마린瓦斯를 注入하는 設備를 하는 것이다.

紫外線消毒은 紫外線裝置로 照射하여 消毒하는 것이지만 經費, 設備 등 問題點이 있으므로 特殊한 경우에 限定한다.

더욱 防虫劑의 使用에는 異種의 藥劑를 混用하지 않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그리고 有機化合物로서 그 가

스가 液化될 念慮가 있으므로 오히려 藥品으로 말미암아 圖書의 汚損을 招來할 수가 있으니 特別히 注意하여야 한다.

그리고 書庫內의 防火問題를 소홀히 할 수 없다. 書庫內의 禁煙은 세삼스럽게 거론할바가 안되지만, 그러나 外部에서 出入하는 閱覽者나 書庫의 移動時에 臨時 雇傭者들에게는 事前에 充分히 그리고 徹底하게 注意를 시켜줄 必要가 있다. 書庫內의 暖房도 熱風에 의한 通氣의 以外에 火氣를 使用해서는 안된다. 또한 注意하여야 할 것은 漏電, 其他 電氣設備에 의한 火災이다. 그리고 書庫內에 自然發火의 念慮가 있는 化學藥品(寫眞材料등)을 持參한다든가 貯藏하는 것은 絕對로 許諾해서는 안된다.

「司書職」 직종도 가지가지. 예전에는 미처 들도 보도 못하던 별아별 직함들이 많다. 예를 들면 編史職이니 敎晦職이니 地籍職 등 따위.

이러한 직종들은 웬만한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고, 특수사전이나 뒤적여 봐야 겨우 무슨 직함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다. 「司書職」 또한 이러한 範疇에 속하는 직종이 아닌가 생각된다.

「司書職」에 대해 그러한 생각을 하게된 것은 도서관을 자기교육의 場으로서 매일같이 드나드는 KLA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司書課」가 될 하는 KLA 친구들, 「司書」가 무슨 뜻인 줄조차 몰라서 書士의 준말로 생각했었던 모양이다. 어쨌든 각종 학생들의 주고 받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 하물며 「司書職」이라는 그 생소한 낱말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일이 있었을까 싶지 않았다.

이들 학생들의 입에서 그러한 질문이 나올 정도였으니 일반사회인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지난 연말에 친지들로부터 온 연하장들을 챙기다가 그저 웃어 넘길 수만도 없는 사실에 그만 어안이 병병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절봉투 주소를 보니 司書課라고 써야 했을 것을 「敎書課」니, 「史書課」, 「士書課」, 「四書課」, 심지어 「敎書課」라고까지 써보낸 그 기발한 탁견에 감탄해 마지 않았다.

그 각각의 친절(?)에 처음에는 이를 애교로 받아들여 했었지만 한편 생각해보니 그 연하장들을 보내준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분에 있고 그러한 장난을 할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 후, 나는 이러한 직종에 몸을 담고 있는 자신이 창피스런 생각마저 들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하기가

면구스럽기조차 했다.

차라리 한글로 「사서과」라고 써보내 줬다면 그래도 피차의 체면치레는 되었을게 아닌가.

세삼스레이 자기 직업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 사람들의 잘못만은 아닌상 싶었다.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

모처럼 동향 친구들끼리의 모임인 자리에서 내 직업을 묻기에 「사서직」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司法書士」말이냐고 반문해서 또한번 말문이 막히고 만 적이 있었다. 그 친구들은 모두가 「司書」라고 하니 「司法書士」의 준말로 생각했었던 모양이다. 어쨌든 그 친구들의 잘못으로 만 들릴 일이겠는가. 잘못은 사전에 있는 그 희한한 「직종」쪽에 있지 않았나 싶었다.

그때 난 그 자리에서 「사법서사」로 해두자며 웃고 말았지만.

그래도 자기판에는 「라이브러리언」이란 어떤 자부심 같은 걸 지녀 왔던 게 이제는 쑥스러운 생각마저 들었고 한편 이처럼 일반인에게 전면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적지아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사서직」을 가리켜 스스로 「사서」고생하는 직종 말이라며 농을 하던 그 해학적인 어운을, 그리고 그 뜻을 이제야 비로소 알 것만 같았다.

그래도 이조시대에는 侍講院의 正八品 벼슬! 만조 백관들이 우러러 보던 관직이 아니었던가.

사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긍지와 환상을 버리지 못하며, 자기직업을 마냥 천직으로 여기고 있는 지도 모른다. 朴尙均(東國大學校 圖書館 司書主任)